

전파방송 주간동향 (제 590호)



2017. 1. 16.(월)

 **한국전파진흥협회**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 목 차 -

◇ 해외 전파방송 동향	1
○ 프랑스	
- ARCEP, “지역, 기업, 5G 및 혁신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에 대한 공개 상담 개시 ...	1
○ 노르웨이	
- 노르웨이, 국내 FM 라디오 전환(switch-off)	2
○ 스웨덴	
- 스웨덴, 2.3GHz 대역 경매 이후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	4
○ 미 국	
- 미 연방항소법원, 앱스토어 독점 혐의로 애플 소송 재개	6

지역분류	유럽 / 프랑스
보도일/기관명	2017. 1. 6.(금)/ 프랑스, ARCEP
제 목	ARCEP, “지역, 기업, 5G 및 혁신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에 대한 공개 상담 개시
출처(URL)	http://arcep.fr/index.php?id=8571&no_cache=1&tx_gsactualite_pi1[uid]=2026&tx_gsactualite_pi1[annee]=&tx_gsactualite_pi1[theme]=&tx_gsactualite_pi1[motscle]=&tx_gsactualite_pi1[backID]=26&cHash=4591898503b8f9d255f564e759d02457

【 개 요 】

o ARCEP은 “지역, 기업, 5G 및 혁신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에 대해 공개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

- o
 - ARCEP은 2.6GHz와 3.5GHz 대역을 포함하는 여러 주파수 대역의 활용에 대해 2개월 동안 공개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힘
 - 공개 상담은 특히 다음의 2가지 주제에 대해 다루게 됨
 - LTE 기술의 진화(4G 모바일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진화)
 - 5G 기술 개발
 - 공공 상담은 새로운 주파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함
 - 4G 및 5G 공개 모바일 서비스의 개발
 - 유선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무선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접속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공공안전, 교통 등에 활용되는 PMR(Professional Mobile Radio) 통신 개발
 - 사물인터넷 개발
 - ARCEP은 공공 상담으로 각각의 사용을 위한 적절한 주파수 대역을 식별하고 할당의 양상을 탐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 ARCEP은 각 주파수 대역마다 목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게 됨
 - ARCEP은 2.6GHz과 3.5GHz 대역에서 단기적으로는 PMR 네트워크와 초고속네트워크 배포가 목표이며, 장기적으로는 5G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7년 하반기부터 PMR 네트워크를 위한 2.6GHz 대역의 40MHz 대역폭에서 PMR 네트워크 전개를 위한 실험을 실시하며, 3.5GHz 대역의 40MHz 대역폭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고정 초고속네트워크 배포를 위한 실험을 실시할 예정
 - 기술이 더욱 진화하면 3.5GHz 대역에서 5G 기술을 위한 실험을 실시할 예정임
 - 새로운 주파수 활용에 대해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2017. 3.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됨

↑ 목차로 이동

지역분류	유럽 / 노르웨이
보도일/기관명	2017. 1. 11.(수)/ PolicyTracker
제 목	노르웨이, 국내 FM 라디오 전환(switch-off)
출처(URL)	https://www.policytracker.com/headlines/national-fm-radio-in-norway-switches-off-today

【 개 요 】

- 올해 12월 말까지 노르웨이 북부(Nordland) 5개 지역 중 최초로 라디오가 전환(switch-off)될 것으로, 노르웨이는 FM 라디오를 전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임

【 주요내용 】

-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는 일반적으로 174-240MHz 및 1452-1492MHz 대역을 이용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30MHz 이상 주파수를 허가하고 있음
 - 비우게 될 FM 주파수 88-108MHz 대역에 대한 관심을 어떤 경우에도 최소화하고, 2022년까지는 지역방송이 계속될 것임
- 노르웨이 디지털 라디오(Digital Radio Norway) 대표 Ole Jorgen Torvmark는 라디오 종료가 방송 복제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Policy Tracker에 언급함
 - 또한, 노르웨이와 같은 작은 국가에서 필요한 것보다 많은 2배가 소모되고 있고, 그 비용은 우리가 커버하는 5백만의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높으며, 현재 노르웨이의 5개 FM 네트워크와 2개 DAB 네트워크가 있고, 이러한 FM과 DAB 각각 연간 약 2,760유로가 든다고 언급함
 - 그는 성공적인 전환계획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디지털화를 위한 계획이 성공한 국가에서는 라디오 산업이 융합되고 있고 정부 및 관련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보이며, 상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 모든 것을 열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함
- 그러나, 일부는 라디오 방송이 노르웨이 의회에서 지지하는 복수정당이 제출한 2011년 백서(white paper)의 4개 기준과 상충한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전환 전에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함
 - 4개 기준은 ① 노르웨이 공공방송 NRK를 위한 커버리지 레벨을 유지하기, ② 청취자를 위한 부가적인 가치를 표현하기, ③ 자동차를 위한 적당하고 기술적으로 만족스러운 솔루션 제공하기, ④ 최소 모든 청취자의 절반은 매일 디지털 라디오 무선국으로 청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등임
- 노르웨이 스펙트럼 관리기관(NKOM)의 주파수관리과 과장 Eivind Velure는 정치가 FM 전환의 상당한 역할을 주도했다고 Policy Tracker에게 언급함
 - 또한, 커버리지, 스테레오에서 모노로의 비교, 인구의 지리적인 사항 등 많은 것들이 논의되었고 아직도 국가 내에서 논의 중으로,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많은 자동차는 DAB 라디오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약 30%가 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어댑터 설치를 위해 자동차 작업장에서 많은 작업을 거쳐야 함
- 소비자가 신규 기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비용은 “부가적인 가치” 기준에 상충된다는 것과 모순이 될 수도 있으며, 좋은 DAB 어댑터는 165.4유로의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 노르웨이인의 50%가 디지털 라디오를 청취할지 여부 또한 의문스러움

- 지난 4월, 노르웨이 지역라디오협회는 DAB 청취가 약 19% 정도라고 언급함
- o NKOM은 FM 전환을 위한 기준이 만족되는 반면에 최근의 Dagbladet(노르웨이 내 2위 주간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66%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나타남
- Torvmark는 Policy Tracker에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있을 것이며, 미래에는 자동차에서 청취하던 것이 모바일 기기 등 다른 기기를 통해서 되기 전 FM 전환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국민들이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o Mediainfo 관리과장이면서 “무선(radio) 미래학자”인 James Cridland는 스트리밍과 같은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이용자보다 방송 라디오는 아직도 필요하고 가치가 있으며 여전히 이용하는 상황으로, DAB는 UK와 노르웨이와 같은 곳에서 스트리밍과 같이 4배 이상이나 많다고 언급함
- 또한, 미국조차도 스트리밍의 성장세는 매우 느리다고 언급함
- o WorldDAB 포럼의 대변인은 노르웨이에서의 DAB가 FM보다 커버리지를 더 제공하게 될 것이고 (특히 도로 터널), 4개의 국내 FM 서비스에서 26개로 더 많은 서비스가 확정되어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o 독일, 스위스 및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전환을 고려하고 있고, 독일 공공 방송사 ARD는 DAB+(DAB의 최신버전)로 전환될 것이며, 스위스의 디지털 이전은 2024년까지 DAB+로 모두 전환할 계획이고, 영국은 DAB 청취자가 50%가 되자마자 국내 커버리지를 FM과 비교하여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함

[↑ 목차로 이동](#)

지역분류	유럽 / 스웨덴
보도일/기관명	2017. 1. 4.(수)/ Policy Tracker, Telegeography
제 목	스웨덴, 2.3GHz 대역 경매 이후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
출처(URL)	https://www.policytracker.com/headlines/2.3-ghz-auction-in-sweden-would-leave-significantly-less-spectrum-for-cameras-and-mobile-video-links-according-to-swedish-regulator https://www.telegeography.com/products/commsupdate/articles/2016/11/01/sweden-cancels-700mhz-spectrum-auction/

【 개 요 】

- 스웨덴 규제기관 PTS(Post and Telecom Authority)는 모바일 광대역을 위한 2.3GHz 대역 (2.3-2.4GHz) 이용에 대한 자문에 착수함
 - PTS는 동 대역에서의 국제적인 개발과 잘 개발된 에코시스템을 지원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모바일 사업자가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함

【 주요내용 】

- PTS는 PMSE(Program making and special events, 프로그램 제작 및 특별행사) 전용으로 2380-2400MHz 대역에서 제안된 20MHz 대역폭이 “전환 슬롯”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PTS의 스펙트럼 부서 Anders Palmberg는 PTS에서 주파수를 경매할 경우 PMSE로 운용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했고 더는 이용 가능성이 없는 중요한 주파수 대역폭이라고 Policy Tracker에 언급함
- 지난 7월, CEPT에서 2.7-2.9GHz 대역을 비디오 PMSE로 연구하는 것을 의무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다 서비스와의 동 주파수 공유 및 인접 대역의 모바일 업무로부터 적당한 이격거리 또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스웨덴에서 모바일 서비스로 고려되고 있는 다른 PMSE 카메라 주파수는 1375-1400MHz, 1427-1452MHz, 1492-1995MHz, 2025-2045.5MHz, 2094.5-2110MHz, 2170-2185MHz, 2200-2220.5MHz 및 2269.5-2290MHz 대역임
- 문제는 보안회사, 엔터테인먼트와 콘서트홀과 같은 항상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회사로, 특별 행사일 경우 보통은 할 수 있는 만큼 어디서든 주파수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Palmberg는 언급함
- NEP Worldwide의 Juul Moen은 이런 것이 PMSE에서의 재앙이며, PMSE 용도로 20MHz 대역폭을 남기는 것의 의미가 저전력 무선 카메라에 인접한 채널에서 고출력 기지국 및 이용자 기기를 갖는 것이 소용이 없고 만일 에릭슨과 같은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언급함
- PTS는 또한 동 대역의 아마추어무선 업무가 새로운 업무의 도입으로 공유하는 과정으로써 면허를 받는 조건이어야 하고, 지리적 지역 내 군과 과학 이용은 배타적 지역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언급함

※ 현재 아마추어무선 업무가 분배되어 있음

- 유럽의 PMSE 산업은 현재 접속할 수 있는 주파수의 양에서 상당히 축소되는 국면에 처했고, 유럽 기관에서 동의한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2020년 700MHz 대역의 재배치에 따르고 있으며, 이는 낮은 UHF 대역의 보조 다운링크 도입을 옵션으로 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스웨덴 PTS는 2016년 12월 1일 700MHz 대역(694-790MHz)을 경매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제기되어 경매가 연기되었으며, 이로써 2017년 4월 1일부터 이용 가능했던 것이 취소되고 2018년 5월 31일(원래는 2017년 4월 1일)까지 지상 TV 서비스로 계속 이용될 것임

[↑ 목차로 이동](#)

지역분류	미주 / 미국
보도일/기관명	2017. 1. 12.(목) / ZDNet
제 목	미 연방항소법원, 앱스토어 독점 혐의로 애플 소송 재개
출처(URL)	http://www.zdnet.com/article/us-appeals-court-reopens-lawsuit-against-apple-for-alleged-app-store-monopoly/

【 개 요 】

-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2일 아이폰 고객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Cupertino의 아이폰 앱스토어 독점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하기로 판결함

【 주요내용 】

- 2011년 말, 아이폰 사용자들(원고) 측은 아이폰 사용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구매할 수 있게하는 애플의 주장에 따라 반독점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함
 - iOS 사용자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없으므로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개발자들은 앱스토어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할 수 있고, 30%가 넘는 판매수수료를 요구, 가격 인상과 함께 시장의 경쟁을 차단했다고 주장함
 - 하지만 1심에서는 원고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지 않아 제소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기각함
- William A. Fletcher 담당 판사는 12일에 제기된 판결에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으로, 원고가 개발자로부터 직접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했는지 아니면 애플에서 구매했는지에 관한 것이다.”라고 언급 했으며,
 - 애플은 “ 앱스토어는 물리적인 공간을 각 점포에 임대하는 쇼핑몰과 비슷하다. 즉, 앱스토어가 쇼핑몰일 경우, 앱 제작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상점과 같다”라고 주장함
 - 이에 Fletcher 판사는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의 써드파티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스토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애플은 아이폰 앱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애플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언급함
- 원고 소송 대리인 Mark Rifkin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이 성공하면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은 애플 판매 수수료 30% 중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밝힘
 - 또한 “반독점 소송 법조항에는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애플이 패소할 경우 수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함

↑ 목차로 이동

내용상 의문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박종실 대리(317-6148, pjs1226@rapa.or.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